

###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신 불멸의 영도

#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탁월한 령도자,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고 하시며

세계적으로 매없이 쏟아지는 무더기비와 우박, 눈사태, 가뭄 현상, 해일현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이든 가지지 않고 수시로 덩벼드는 이런 자연의 광란은 실로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행을 주고 있다.

하여 지구상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를 겪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만은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

물먹은 산이 통째로 무너져내려앉은듯 육중한 바위들과 시꺼먼 흙,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무성하게 걸터앉은 콘물과 범벅이 되어 마을을 휩쓸고 거리를 휩쓸어도 공화국인민들은 배심든대 있었고 콘물에 집가산을 송두리채 잃고서도 결코 비판이나 질타에 빠지지 않았다.

주제101(2012)년 개천의 조양관지구와 검덕지구에서의 콘물 피해, 2015년의 라선지역에서의 콘물피해, 2016년의 함북도 북부지구에서의 콘물피해, 지난해 콘물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련이어 공화국인민들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였다.

이 모든 재해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피해를 가져왔지만 그때마다 콘물이 휩쓸고 간 황량한 곳마다에 본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황홀한 마을들과 거리가 짧은 몇몇어울어 간에 일떠서 사람들을 놀래우곤 했다. 이것은 세계가 다 보고 목격한 사실들이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로제야카하린 원동분원대교단 단장은 2016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조선의 북부지역에서는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재해지역이 넓고 피해규모가 엄청나기때문에 북부지역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쉽게 결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매우 짧 은 것이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요대상건설도 중지하고 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인민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이 없이는 내릴 수 없는 대응단이다.》

그렇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져주는 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이 없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었다.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하늘땅 끝까지라도 따르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온몸속에 깃 들어차있고 총화추동으로 오로지 인민에 대한 생각에 사무쳐 사시는분, 언제나 인민과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은 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해 강그리 둘러졌다.

하여 교전직전으로 치달았던 수년전 8월의 5일간이라고 말하는 가장 준엄한 위기일발의 사태,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과도 가 시시각각한 원동분원대교단 최악의 역경상태에서 열린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피해

복구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고 강력한 피해복구전투연합지휘사령부를 조직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으며 자연재해로 무모와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이 부모음속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야영소로 떠나는 감격적인 화속도 펼쳐지게 되었다. 또한 재해지역 인민들이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사업하는 이 세상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감동깊은 화속이 이 땅우에 수놓아질수 있었다.

어제 그뿐인가.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에는 너무나도 기쁘시어 점심식사도 잊으신채 살림집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아보시던 친아버지의 모습도,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 살림집들을 보시면서는 황홀하고, 기쁜 일면이 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더요 보람이던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인민의 자로운 어머니의 모습도 친지개별별 피해지역들에게서 뵈을수 있었다.

김정 인민의 불행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며 인민을 위해 온몸을 강그리 불태우시는 인민의 령도자에게만이 주실수 있는 사랑이고 정의다.

바로 이 위대한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화가 복으로 되고 역경이 순경으로 전환되는 기적적인 승리가 련이어 이룩될수 있는 것이다.

세인을 놀래우는 이 기적을 두고 어느 한 나라의 종교인은 이렇게 말했다.

《신과 정의, 사랑을 설교하고 (저승의 행복)을 약속했을 뿐인 종교장사자들이 인민의 여러 세대들로부터 숭상을 받아오고 있는데 하물며 정의와 진리, 사랑을 구원하여 자기들을 불행에서 건져주고 자상락원에서 살도록 해준 위대한분을 어찌 그들이 숭배하지 않겠는가.》

오늘 공화국의 그 어느 누구도 만나보아도 그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설사 제2, 제3의 엄청난 자연재해가 들어닥친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화도 복으로 될것이다.》

이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는 적대세력들이 발광하는 속에서도 수많은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였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물질문명을 안겨줄 천리마전체종합공장 평양자라공방, 땅 밑에서 《백금》을 안아올린 지하초염수개발의 완전성과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자로 되고있는 생산공정을 자기적으로 완성한 순천화철합기업소의 아크릴계철강생산공정, 자기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는것을 실증한 지하전동차,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자기 공장, 자기 도를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

어제 이뿐인가.

인공지구위성이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르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창조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천만대중이 있고 열렬한 애국심과 뛰어난 창조적능을 지닌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있으며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가 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잘 도와주며 그들이 어떤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이 나라이 인민을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는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과격치하게 감행되었으며 그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것이었다. 거기에 련이어 자연재해로 시련과 난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정세가 엄혹하고 도전과 난관이 클수록 주저앉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필승의 신심과 공격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맞받아나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있다.

무엇에 의거하여 무슨 정신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로 내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온데 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지이다.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나서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전투구호로 천진면적대진군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해주고있다.

##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리론을 더욱 발전중부화하시여

### 탁월한 사상리론의 지장

공화국에서는 자력갱생이 전통으로 되어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발간하는 시대와 격변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리론을 더욱 발전중부화시켜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천명하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길만이 살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깊이 심어주시었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이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좌표로 되게 할 용기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관한 사상리론을 더욱 발전중부화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제103(2014)년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인대대회에서 하신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에서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최첨단들과의 정신이라고 정식화 해주셨다.

그이의 이 정식화에는 맨손으로 트랙도르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로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즐기치게 이어 당당한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자력의 과학기술력에 의거한다면 누구 제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자력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길만이 살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깊이 심어주시었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는 자력갱생이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이며 면에서 계획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어야 한다는것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일 때 그 생활력이 더 높고 발전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밝히신 자력갱생이야말로 공화국경제의 사회주의적성격과 자립성을 견지하고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발전에로 이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유일한 출로이라고 할수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헤쳐며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떠마다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갔었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려명지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자기 도를 대표하고 자기 공방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자력갱생이 고 유한 투쟁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자력부강, 자력변영의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제힘으로 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리 경 미

힘밖에 없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주신 자력갱생정신은 자력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부강변영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자주적인 강국건설로선이 새겨져있다.

올해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에는 자력갱생이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이며 면에서 계획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어야 한다는것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일 때 그 생활력이 더 높고 발전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밝히주신 자력갱생이야말로 공화국경제의 사회주의적성격과 자립성을 견지하고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발전에로 이행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유일한 출로이라고 할수 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헤쳐며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떠마다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갔었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려명지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자기 도를 대표하고 자기 공방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자력갱생이 고 유한 투쟁방식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자력부강, 자력변영의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제힘으로 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리 경 미

### ◎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

## 가장 절박한 과업 조국통일은 곧 애국

주제80(1991)년 8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을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이 해방된 뜻깊은 날을 맞으며 범민족대회와 여러가지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진행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문제와 본질과 나라가 분열된 원인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

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제 조 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고 교시 하시었다.

분열의 비극을 겪고있는 민족의 고 통과 불행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우리르며 그들모두는 제2차 범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치르어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 굳게 마음다지고 또 다지였다.

앞으로는 반공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진정으로 말씀하셨다.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통일에국의 길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믿음과 사랑을 부여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진정에 그는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인생의 새로운 길에 용감 뛰어들

주제71(1982)년 9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뜻깊은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장년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수령님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백두의 협심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열된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 조성이었지 결코 두동강이 난 조선이 아니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조

선민족으로서의 자적도, 조선에서 살자적도 상실한 목석이라고, 민족의 분열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만이 애국자이며 혁명가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참다운 애국의 진리를 새겨주는 철세위인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기자

사람이 자기의 신조를 바꾼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더우기 한생 지켜온 사상을 바꾼다는것은 진실로 위대한 사상에 감복되어 그 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기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불미스러운 인생길에서 방황하다가 생의 말엽에 참된 삶의 품에 안겨 통일애국의 길을 걷은 전세평화련합 화련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인첼리를 응원으로 실증하고있다.

평안북도 정주태생 인 문선명선생은 인생초엽에 당국의 설움안고 현해탄도 건졌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남조선으로 나가자적 《통일교》의 교주가 되어 《반공》을 꿰찼던 사람들의 한사람이었다.

그가 《반공》으로부터 편공련북으로 인생전환을 하게 된 데는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대단합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 포용력, 크나큰 사랑과 은정의 세계가 어려웠다.

1991년 11월말 인생의 황혼기인 70세에 넘긴 문선명선생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사실 그가 고향방문을 요청해왔을 때 공화국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한생 반공으로 살아온 그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외면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 제도과 재산의 유무 등 모든것을 초월하여 안이하고 이끌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하여 문선명선생은 공화국을 방문하는 소원을 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는 반공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진정으로 말씀하셨다.

자기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통일에국의 길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믿음과 사랑을 부여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진정에 그는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인생의 새로운 길에 용감 뛰어들

수 있었다.

그는 고향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장군님의 은혜에 이가면 다 감사할 길이 없는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심심한 사의를 표할것》이라고 자기의 마음속심중을 토로하였으니 조국방문후부터는 기도를 드릴 때 《북과 남이 다 합하여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되어 김일성주석님을 중심으로 7천만민족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외웠다고 한다.

이렇게 문선명선생은 단 7일간의 공화국방문으로 오래동안 주장하던 반공을 부정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합사상을 지지찬동하였으며 북남협력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민

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심을 안고 살아온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었을 때에는 《북에서 의교사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면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가서라도 주석님께 조의를 표시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속에 통일에국의